

세플러⁺윈

VOL. 82 / AUTUMN & WINTER 2025

Motion

SCHAEFFLER

Contents

- 06 Schaeffler New**
세플러 전동화의 기준을 세우다, EMR4
- 08 Master**
이천과 안산, 통합 시너지를 꽃피우다
- 12 Scene**
늦가을 빛이 머무는 자리, 보람정원
- 16 Team Schaeffler**
연결된 현장의 힘으로 디지털 협업을 열다
- 22 New Face**
첫 통합 신입사원 교육
- 28 S. Culture**
하나로 연결되는 문화, 세플러코리아의 새로운 시작
- 30 S. Identity**
Global Brand Integration(GBI) 프로젝트
- 32 Together**
BU Wheel Bearing Project Management
황민수 팀장 가족의 궁평캠프 승마 체험
- 36 Schaeffler Ground**
9~11월 주요 뉴스
- 40 Schaeffler Challenge**
최애 사진 챌린지 세 번째 이야기
- 43 Thanks & Quiz**



Motion

We pioneer motion에서
 'Motion'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관통하는 핵심 연결 요소입니다. 이 움직임을
 향한 일관된 신념으로 세플러는 해마다
 더 나은 솔루션을 확장하며, 고객과 함께
 미래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세플러*원 바로가기



사보 <세플러+원>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필자의 의견으로 세플러코리아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사용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행일 2025년 12월 5일(통권 제82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민유정, 윤솔지, 이현기, 김채정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2F
 기획·디자인 PEOPLE PAGE(대표전화 02.6674.0111)

New Rhythm,

One 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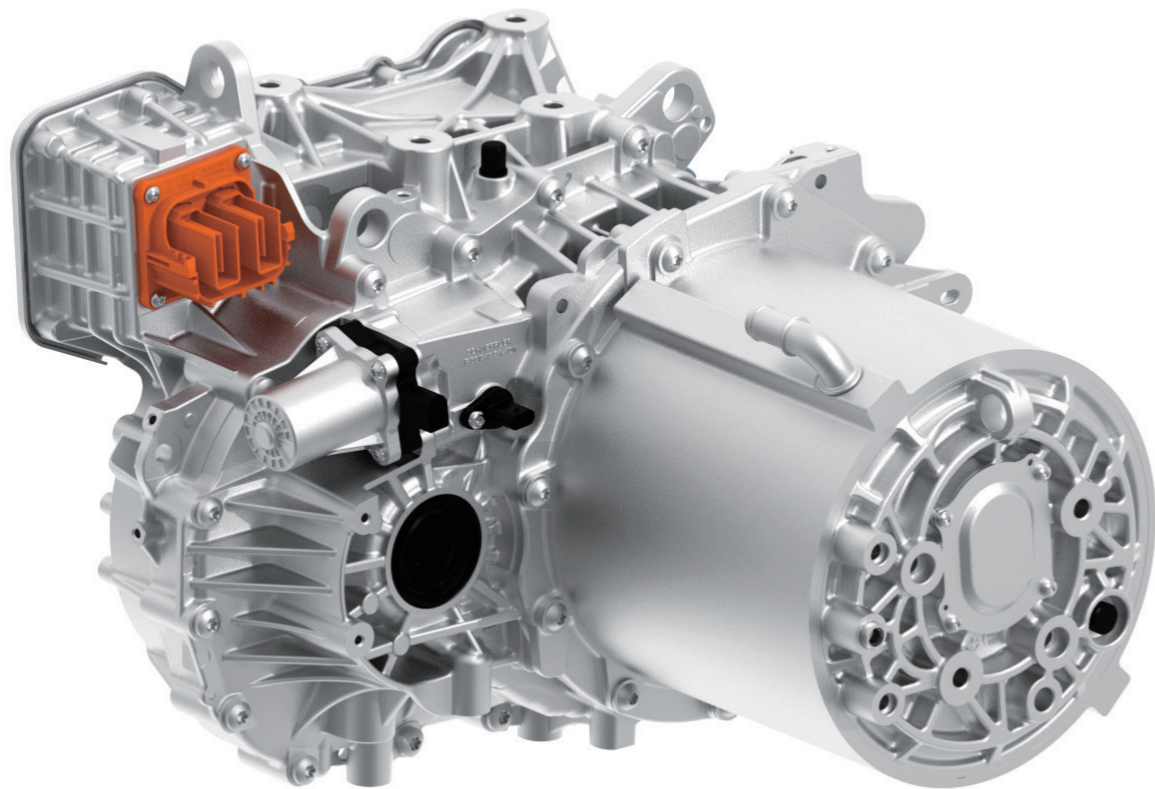
새로운 리듬, 하나의 모션

통합 1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하나의 이름 아래 같은 박자를 맞춰가는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움직임이 만나 더 깊은 울림을 만들듯,
세플러는 이제 서로를 조화롭게 이어주는
하나의 리듬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혁신이 쌓이고, 시너지가 퍼져나가며
우리는 미래 모빌리티를 향해
더욱 역동적인 가치와 흐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EMR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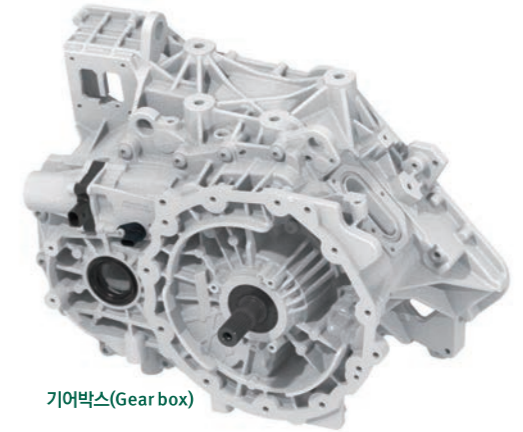
EMR4는 세플러 전동화 포트폴리오를 대표하는 4세대 구동 시스템으로, 전기모터·기어박스·인버터를 하나의 구조로 통합한 3in1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높은 출력 밀도와 경량화, 정숙성, 효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술이다. 이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EMR4는 출시 10개월 만에 10만 대 생산을 달성하며 세플러의 전동화 역량을 상징하는 핵심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세플러 전동화의 기준을 세우다



4세대 3in1 기술 혁신으로 완성한 고밀도·고효율 시스템

EMR4는 세플러가 지난 수년간 축적해온 전동화 개발 경험과 생산 역량을 집약한 4세대 통합 구동 시스템이다. 기존 EMR3 대비 기술적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먼저 스테이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EMR3에 적용되던 2 layer / I-pin 와인딩 방식은 4세대에 이르러 4 layer / Hair-pin 와인딩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전기적 손실을 줄이고 출력 밀도를 극대화하는 핵심 개선 요소로 작용했다. 더 높은 등급의 영구자석을 적용하고 로터 구조를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모터의 토크·출력 특성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고출력 특성은 모터부 외형을 줄여 전체 시스템의 경량화로 이어졌다. 출력과 효율 개선 외에도 패키징 최적화는 EMR4 개발에서 중요한 목표였다. 3in1 구조는 전기모터·기어박스·인버터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발생하는 패키지 비효율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며, 차량 내 탑재성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EMR4는 이러한 패키징 장점을 기반으로 기존 대비 콤팩트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동일 또는 더 높은 성능을 구현하도록 설계했다.



기어박스(Gear box)

NVH 통합 개발이 만든 품질 경쟁력과 세플러 전동화의 미래

EMR4는 세플러의 기어박스 기술과 구비테스코의 모터·인버터 기술이 통합된 첫 세대 구동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의미가 크다. 특히 NVH 영역에서의 통합 개발 성과는 두 조직의 협력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기어박스와 전기모터는 동일 축계에서 회전하는 기능 특성상 어느 한쪽의 설계만으로는 발생 가능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EMR4 개발에서는 NVH 개선을 위한 구조적·기능적 접근이 양측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축계 소음 개선을 위해 모터 측에서는 스프링 강성을 높이고 심링 두께를 증가시키며 축 길이 공차를 정밀하게 제어했다. 기어박스 측에서는 베어링 지지부 공차를 축소하고 오링을 적용해 베어링 흔들림을 최소화했으며, 기어박스 축 길이 공차 또한 모터와의 결합을 고려해 조정했다. 여기에 기어박스 치형을 미세 조정해 기어 메싱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였으며, 모터 측에서는 인버터 커버 재질을 변경해 방사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보완했다. 덕분에 EMR4가 시장에서 높은 정숙성 평가를 받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EMR4는 양산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능을 유지하면서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량화 및 구조 최적화를 검토 중이다. 한편 세플러 본사 차원에서 EMR4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구동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향후 세플러 전동화 포트폴리오의 기술적 확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One Team 체제가 이끈 높은 수준의 품질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고객사의 높은 요구 수준을 충족하면서도 제한된 개발 기간 안에 모든 설계와 검증을 완료하는 것이었다. 효율, 출력, 발열, 내구뿐 아니라 고속 구동 시 소음과 진동을 포함한 NVH(Noise·Vibration·Harshness) 기준까지 모두 만족하는 것이 필수 과제였다. 이를 위해 동선 면적 확대, 로터 라미네이션 스택 수 증가, 냉각 구조 개선, 하우징 강성 보강, 축계 공차 최적화 등 전 영역에서 세부적인 설계 개선을 반복적으로 적용했다. 1년여에 불과한 짧은 개발 기간 동안 이러한 기술적 개선을 단계별로 검증하고 양산에 맞춰 반영해야 했기에, 한국과 독일을 포함한 글로벌 세플러 조직 간의 긴밀한 협업은 필수적이었다. 한국 개발팀은 고객사 요구사항 분석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기민하게 수행했고, 독일 개발팀은 시스템의 기본 설계와 검증을 담당하며 전반적인 기술적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 이전 브라소브(시스템), 안산 타이창(기어박스), 텐진·뉘른베르크(파워모듈), 키슈체(베어링) 등 글로벌 생산 거점이 양산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며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발맞추었다.

이천과 안산 통합 시너지를 꽃피우다

단 10개월 만에 10만 대 생산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며 전동화 포트폴리오 확장을 선도한 EMR4는 이천 사업장과 안산 사업장의 헌신적인 협업으로 꽃피운 'One Team Story'의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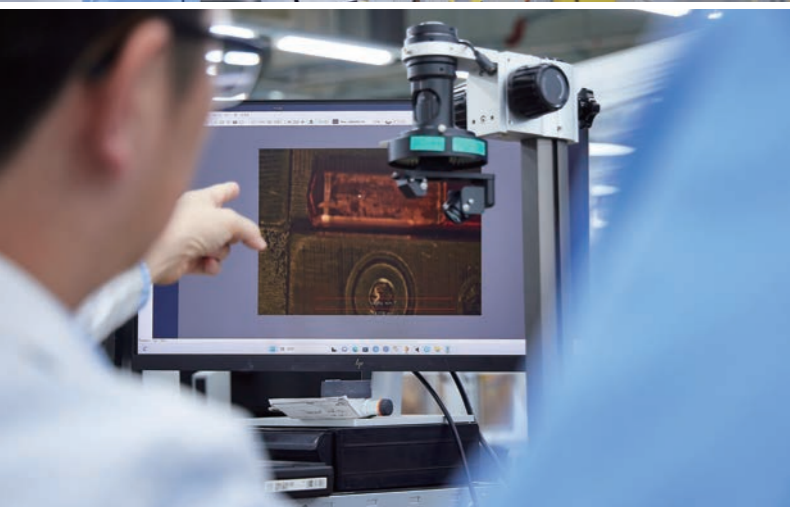
왼쪽부터

BD E-DRIVES HVD KOREA
EMR4 Project Manager 이천
이재영 님

E-Axle Segment 안산
이은식 세그먼트장

OPS ASIA ICHEON PS1
Head of Production Segment 1 이천
김용래 님

공정기술 안산
박지윤 마스터



EMR4 Master Interview



이천 공장
OPS ASIA ICHEON PS1
Head of Production Segment 1
김용래 님

“EMR4 프로젝트는 전세계 E-Axle 프로젝트 중 가장 빠르고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양산되었습니다. 이는 전 글로벌 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인 결과이며, 향후 세플러가 전동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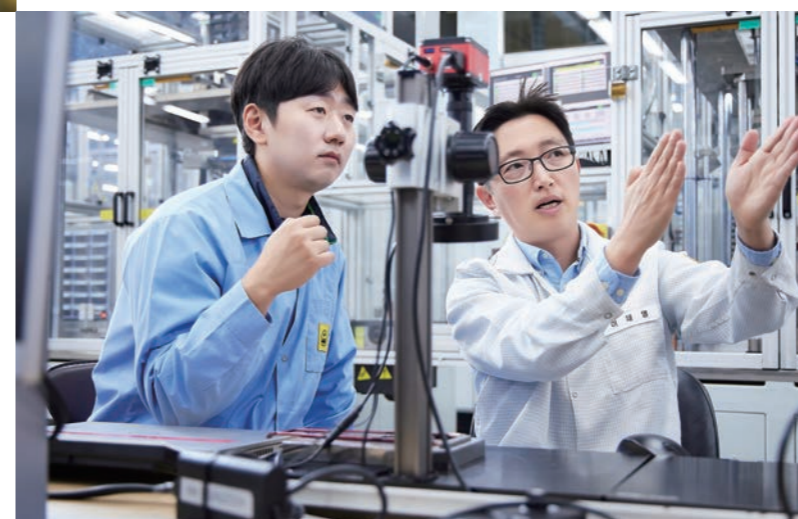
안산 공장
E-Axle Segment
이은식 세그먼트장

“서로 다른 기술적 배경과 조직 문화를 가진 팀 간 협업에서는 상호 존중과 개방성이 기본이며, 부품 단위가 아닌 전체 구동 시스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 방식이 중요합니다. 공동 책임 의식으로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협업의 신뢰를 만듭니다.”

특히 안산 공장은 초기 양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 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이천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요구되는 품질 조건을 세부적으로 반영해 생산을 최적화하고 있다. 기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사업장 간의 실무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정기술 안산의 박지윤 마스터는 “안산 공장에서 생산된 기어박스가 이천 공장의 로봇에 의해 로딩되며 모터와 인버터가 어떻게 조립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천 공장 생산설비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천 공장의 조립 공정을 이해하고, 안산 공장에서는 중요 홀과 접촉면에 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협업의 구체적인 효과를 설명했다. 서로의 공정을 이해하고 관리 포인트를 공유하는 이러한 노력은 EMR4가 세플러와 비테스코 통합의 성공적인 시너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했다. 이천과 안산 공장 간의 지속적인 협업과 교류는 향후 세플러의 모든 전동화 포트폴리오 확장에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플러 이천 사업장에게 EMR4 프로젝트는 공장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도전이었다. 모터, 인버터, 기어박스가 통합된 3in1 시스템인 EMR4의 성공적인 양산을 위해 이천 공장은 생산설비 설치 및 공정 구축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를 진행했다. 특히, 글로벌 팀워크와 빠른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세플러의 'First Time Right' 생산 철학이 단기간 내 EMR4의 성공적인 양산을 이끌었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초에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천 공장은 전동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EMR4의 성공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생산, 설비보전, 생산 기술팀 등 현장 실무자들이 글로벌 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초기에 발생하는 수많은 이슈를 빠르게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10만 대 생산 달성의 핵심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이 묻어나는 OPS ASIA ICHEON PS1 Head of Production Segment 1 김용래 님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이천 공장의 생산설비는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EMR4의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을 위한 안산과의 통합 시너지
EMR4는 세플러의 기어박스 기술(안산/타이칭)과 구 비테스코의 전기모터 및 인버터 기술(이천/브라소브)이 통합된 시스템이다. 이처럼 기술 배경이 다른 부품이 하나의 구동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었다. 이천 공장에서 모터와 인버터 조립을 담당했다면, 안산 공장은 EMR4의 핵심 부품인 기어박스를 정밀하게 생산해 이천 공장에 납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산 공장의 기어박스 생산설비는 지난해 말 완공되어 2025년 6월 30일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으며, 초정밀 가공을 통해 고품질의 기어박스를 생산한다. 특히, EMR4의 정숙성(NVH)을 확보하기 위해 안산 공장에서는 기어박스에 대한 소음 및 치형 변형 검사를 진행해 양품만을 이천 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부품 단위에서의 철저한 품질 관리가 최종 조립 단계에서의 완벽한 품질로 이어지는 것이다.



보람정원 늦가을 빛이 머무는 자리



Special Thanks to

촬영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근목 님 Icheon Facility Management
전현표 님 Icheon Facility Management
장형규 님 Icheon Facility Management
전유현 님 Assistance Office of the Head of E-Mobility AP
김오순 님 Icheon Location
권욱이 님 Icheon Location



가을빛이 사뭇히 내려앉은 날,
이천 사업장 보람정원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이 정원은 언제 방문해도 좋을,
잠시 멈춰 쉬어가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작은 여유를 선물했습니다.





보람정원은 휴식을 넘어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동료들은 미뤄둔
안부를 건네고 소소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짧지만 깊은 이 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루를 걸어갈 힘을 조용히 되찾았습니다.



IT + 전주 공장 연결된 현장의 힘으로 디지털 협업을 열다

전주 공장이 'Shopfloor IT Access'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IT 팀과 현장이 하나의 팀으로 연결된 이번 변화는 '디지털 전환(DX)' 시대의 새로운 협업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다.



메인베어링 세그먼트
김동길 계장

공정기술 전주
채규홍 팀장

AP IT Infrastructure & Employee IT팀
선혜진 프로



HR전주
이광렬 마스터

AP IT Infrastructure & Employee IT팀
김성만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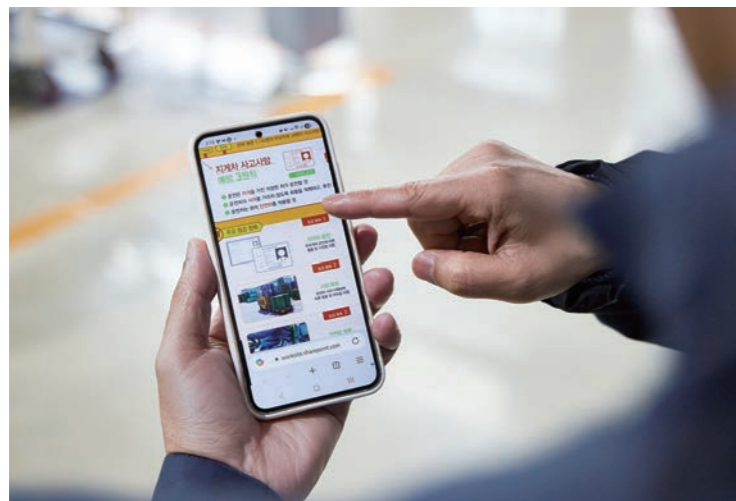
메인베어링 세그먼트
최규정 주임

For the Field

현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다

'Shopfloor IT Access' 프로젝트는 세플러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서 중요한 이정표다. AP IT Infrastructure & Employee IT팀 김성만 팀장은 "사무실 중심의 디지털화가 현장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현장 직원에게도 세플러 IT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 접근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장과 사무소 간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세플러의 전사적인 디지털 포용성이 완성되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현장 중심'이었다. 준비 단계에서 IT팀은 여러 부서 담당자와 워크숍을 열어 '직원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전주 공장 현장 팀과 지원팀, 안전 담당 등 실무자들이 프로젝트팀에 직접 참가했으며, 각 생산설비에서는 'Key User'를 선정해 새로운 시스템을 현장에 전파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BYOD(Bring Your Own Device) 솔루션 도입은 한국 생산 환경에 맞춘 결정이다. 개인 PC 사용이 제한적인 현장 특성을 고려해, 직원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세플러 메일함과 Microsoft Teams 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AP IT Infrastructure & Employee IT팀의 선제적 프로는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UI를 단순화하고, 보안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개인 기기 내 솔루션 설치에 대한 거부감과 보안 우려도 있었지만, IT팀의 신속한 지원과 2개월여에 걸친 짧은 준비 기간 동안 각 팀 Key User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협조가 더해지며, 시스템을 빠르게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Grow Together

달라진 전주 공장 효율성과 팀워크가 함께 성장하다

프로젝트 완료 이후 전주 공장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HR전주 이광렬 마스터는 "예전엔 공지사항을 일일이 출력해 각 통로 게시판에 자석 홀더를 부착해 게시했지만, 이제는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교육 역시 책 한 권을 돌려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자료를 열람하고 서명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업무 속도뿐 아니라 구성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메인베어링 세그먼트 김동길 계장은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관리 정확도가 향상됐고, 게시판 관리나 안전화 요청 처리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다"고 말했다. 데이터 누락이 줄고 의사결정이 신속해지면서 팀 간 협업 방식도 한층 유연해졌다. 메인베어링 세그먼트 최규정 주임 역시 "이제는 팀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정보가 전달되니, 투명하고 빠른 소통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효율성 향상을 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팀워크 강화로 이어졌다.



One Team

세플러코리아가 지향하는 디지털 전환의 모범 사례

현장의 목소리는 프로젝트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광렬 마스터는 “외부에서는 디지털 자원을 잘 활용했지만, 회사 안에서는 소외감을 느꼈던 현장 직원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김성만 팀장은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IT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현장 직원들이 디지털 환경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서울과 전주, 사무소와 생산설비를 잇는 이번 협업은 세플러코리아가 지향하는 ‘One Team’ 정신의 실현이다. 참여자 모두의 열정과 소통, 빠른 실행이 만들어낸 결과는 전사적 디지털 전환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이광렬 마스터는 “앞으로 SI를 활용해 정보가 더 쉽고 요약된 형태로 제공된다면 현장은 한층 더 스마트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미래를 내다봤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김성만 팀장 역시 “이번 변화는 사람의 생각과 협업 방식을 바꾼 일”이라며 다시 한번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강조했다. ‘팀 세플러’의 진짜 힘은 이렇듯 연결된 현장에서 더욱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BYOD Bring Your Own Device Solution

BYOD는 세플러의 업무용 관리 앱을 통해 세플러에서 제공하는 Office365 App 설치만 지원하고 개인 데이터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 및 데이터에는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이 강화된 솔루션입니다.

김성만 팀장

세플러코리아가 통합 1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비전을 공유할 첫걸음을 내디뎠다. 합병 후 처음으로 통합된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Base Camp Program'이다. 지난 10월 20일 전주 사업장을 시작으로 창원·안산·이천 등 전국의 주요 거점을 돌고 서울 사무소에서 마무리한 이번 여정은 신입사원들에게 세플러의 발자취와 미래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무대였다.

Base Camp에서 다 함께
Stronger, Together의 약속

STRONGER, TOGETHER





우리만의 박자 찾기

서로의 속도를 살피고,
어색함도 웃음으로 넘기며 만들어낸 첫 장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협력의 가치를 온몸으로 체득한 현장

10월 20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 교육장은 이른 아침부터 세플러코리아 신입사원들의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세플러코리아 통합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위한 첫 통합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Base Camp Program'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 뜨거운 여정의 출발점이었던 전주 현장. 오전 일찍부터 진행된 교육 현장은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신입사원들의 집중으로 몰입도가 높았다. Base Camp Program의 핵심 모듈 중 하나는 '팀워크가 폭발하는 협업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이는 조직원으로서 성과 달성을 위한 시너지 형성 및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입사원들은 각기 다른 직무와 배경을 가진 동기들과 하나의 팀이 되어, 목표 달성을 위한 복잡한 팀 과제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이해하고,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협업 과제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처음에는 각자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과제 해결에 200초가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서로를 배려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계속된 훈련을 통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역할과 순서를 배려하고 조정할 수 있었다. HR People Development, Qualification & Learning팀의 윤한준 팀장은 "최종적으로는 모두 90초 대로 과제를 완수해 냈다"고 밝혔다.

혼자 잘해서 얻은 성과보다 같이 잘해서 얻은 성과가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보람된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는 순간이었다. 함께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신입사원들이 온몸으로 체득한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는 Base Camp

이번 Base Camp Program은 단순한 직무 교육을 넘어, 세플러코리아의 통합 1주년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담아 전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핵심 가치와 비전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프로그램은 통합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신입사원 교육으로, 그 배경과 기획 의도에 깊이가 더해졌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신입사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전체 비즈니스 흐름 내에서 확인하고 구매, HR, IT 등 주요 내부 부서를 소개받으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는 신입사원들이 입사 초기부터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 경계를 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윤한준 팀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동기들과의 돈독한 우정, 협업과 연결의 경험"이라며, "후배님들이 힘든 시기가 올 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는 세플러가 추구하는 'Stronger, Together' 정신을 신입사원 단계부터 뿌리내리게 하려는 확고한 의지이기도 하다.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다

포즈를 맞추며 자연스럽게
역할이 생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균형을 세웠습니다.

다름을 모아 하나로

각자 스타일은 다르지만
포즈 아이디어를 내는 순간 의견이
자연스럽게 얹히며 확정되었습니다.



도전 앞에 함께 서다

서로를 믿고 동시에 움직여야만
완성되는 포즈.
역시 도전은 함께해야 재미있어요.



마음이 맞을 때 생기는 힘

짧은 순간이었지만,
함께하면 분위기조차 힘이 된다는 걸
모두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Base Camp Program은 신입사원들에게 세플러에서의 경력 여정을 위한 'Base Camp'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교차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 교육을 통해 신입사원들은 세플러가 전통의 베어링 부품 제조사를 넘어, 전동화(E-Mobility)와 혁신 기술을 통해 모빌리티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는 글로벌 기업임을 깊이 체감했다. 이들은 이제 기술을 통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세상을 만들 세플러의 비전과 함께 성장할 준비를 마친 셈이다.

HR People Development, Qualification & Learning팀 이수림 프로는 "저도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한 만큼, 함께 배우고 성장해가는 중"이라는 소감과 함께 "이번 프로그램에 스태프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얻어가는 시간이었다"며 함께 성장할 후배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철근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게 여는 미래

전주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체득한 신입사원들은 이후 창원·안산·이천 사업장을 순회하며 세플러의 제조 현장과 첨단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 사업장의 고유한 문화와 팀의 역할을 이해하고, 세플러의 광범위한 비즈니스 영역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잠재력을 깊이 있게 파악했다. 이는 단순히 회사 규모를 학습하는 것 이상으로, 합병을 통해 확보한 시너지 효과와 미래 성장 동력을 체감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조직이 동작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팀 세플러의 다양한 부서와 인원들을 접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각 사업장에서의 교육을 통해 세플러코리아의 광범위한 영역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잠재력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었습니다." 등 함께한 신입사원들도 이번 교육에 대한 당찬 소감을 표했다. 신입사원들은 이제 Base Camp Program을 마치고 현업으로 돌아갔다. 교육에서 배운 협력의 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철근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세플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며, 통합 1주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서 그들의 힘찬 발걸음이 기대된다.



Mini Interview

이번 신입사원 교육에 참여한 이천 사업장 신입사원 4인이 대답했다.

나에게 세플러는?



Embedded SW Engineer
유겸희님

든든한 터전, 반석이다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세플러'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서 효율적이고 능숙하게 '잘' 해내는 엔지니어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System Engineer
김지수님

꿈을 실현하는 무대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 모빌리티를 실현할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장을 선도하는 세플러의 기술력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Occupational Health Professional
홍정인님

인생의 새출발이다

보건 분야에서 3년 이상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플러에서 더욱 성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 앞장서는 세플러인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Equipment Industrial Engineer
김승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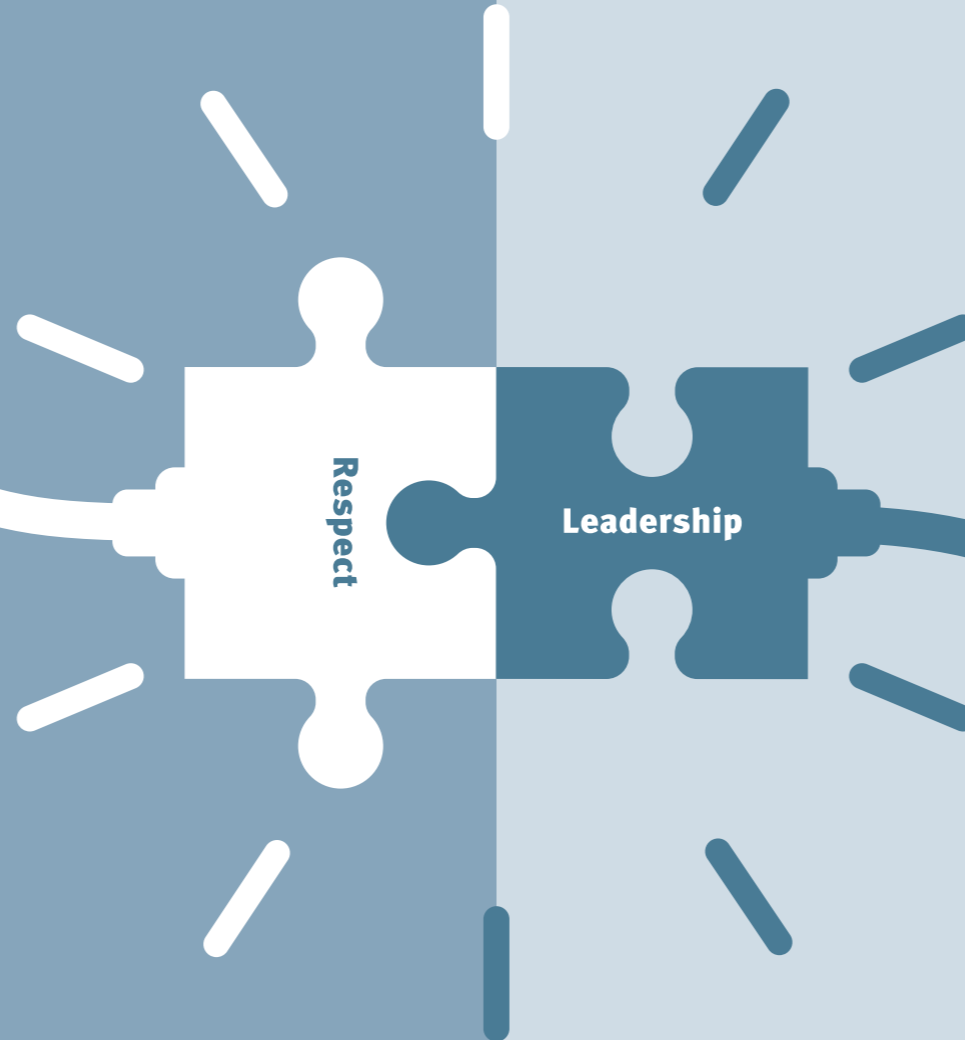
철근 콘크리트다

현대 문명을 가능케한 철근 콘크리트가 신의 선물이었다, 저와 세플러의 만남 역시 혁신적 엔지니어링을 가능케 할 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문화

세플러코리아의 새로운 시작

세플러코리아는 통합 이후 더 강한 하나의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Culture Transformation 워크스트림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HR그룹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이번 변화는 조직의 비전과 행동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장기 전략이다. '존중(Respect)'과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핵심 가치를 토대로, 한국 내에서 'The Leading Motion Technology Company'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문화의 뼈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4가지 전략적 기반

통합 이후 세플러코리아가 빠르게 추진 중인 Culture Transformation 워크스트림은 독일 본사에서 시작된 Integration Execution 프로젝트를 세플러코리아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HR Head의 강력한 의지로 출발한 이 워크스트림은 방대해진 조직을 하나의 방향성 아래 정렬시키기 위한 전략적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세플러코리아는 Performance driven System, D&I for Employees, Appreciative Leadership, Differentiation of UNION management의 4가지 전략적 Pillars를 설정해 변화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다.

조직이 커질수록 직원들은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나침반'을 필요로 한다. Culture Transformation 로드맵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며, 세플러와 비테스코의 통합을 넘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우수한 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HR People Development, Qualification & Learning팀 윤한준 팀장은 "내부 직원이 '정말 좋은 회사'라고 느끼는 문화가 만들어져야만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체계적인 보상,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환경, 그리고 따뜻한 리더십이 공존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 플랫폼과 건강한 소통 문화

이러한 방향성은 다양한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합 이후 가장 먼저 구축된 Learning Hub는 사업장마다 달랐던 교육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직원들의 개인 개발 계획(IDP)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플랫폼이다. 직원들은 Hub를 통해 교육 기관 및 과정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성장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매달 진행되는 Learning Day는 조직문화의 '근간(Fundamental)'을 만드는 핵심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에는 맥킨지 출신 컨설턴트를 초청해 '번아웃 이해' 세션을 열었고, 14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번아웃 해소는 직원의 업무 영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와의 만족스러운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며 큰 공감을 얻었다. Learning Day는 단순 교육이 아닌, 구성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동기를 얻는 장으로서 조직문화의 건강성을 높이고 있다.

소통 기반의 조직문화를 강화하는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CEO와 직원들이 직접 연결되는 Open Talk with CEO, 창원 공장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Leadership Coaching 세션은 리더십 역량 강화와 투명한 소통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Appreciative Leadership Pillar를 구체화하는 활동으로, 리더가 조직 변화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윤한준 팀장은 세플러코리아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존중과 리더십'으로 명확히 정의한다. 그는 영화 <인턴>을 언급하며, "연륜과 경험이 있는 선배와 열정과 비전이 있는 후배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협업할 때 비로소 최고의 성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호 존중 기반의 리더십이 바로 'One Schaeffler' 문화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다. 더불어 모든 조직문화 활동 안에는 환경·안전·사람으로 이어지는 ESG 가치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플러코리아의 Culture Transformation은 구성원 간의 존중, 건강한 리더십, 명확한 성장 방향성이 결합되며, 글로벌 우수 조직으로 발전할 기반은 이미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다.



하나의비전,하나의브랜드!

GBI 세플러의 새로운 통합 여정 PROJECT

로고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세플러는 그 질문에 '브랜드는 철학의 언어'라고 답한다. 이천과 군포에서 진행 중인 Global Brand Integration(GBI) 프로젝트는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닌, '하나의 세플러(One Schaeffler)'로 나아가는 새로운 통합의 시작이다.

세플러의 철학을 잇다

세플러 그룹이 추진 중인 Global Brand Integration(GBI) 프로젝트는 글로벌 차원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통합하고,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다. 특히 비테스코와의 합병 이후, 세플러는 기술 포트폴리오의 확장뿐 아니라 브랜드 통합을 통해 'The Motion Technology Company'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자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로고를 교체하는 작업이 아니라, 세플러가 가진 철학과 비전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구성원과 고객 모두가 동일한 브랜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사적 여정이다. 한국에서는 이천(구 비스테코)과 군포(구 에벨릭스) 사업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2025년 8월 초 킷오프 이후, 이천 사업장은 빠른 속도로 리브랜딩이 진행 중이다. 옥외 간판과 리셉션, 사무실 내부, 생산설비 등 주요 공간에 세플러의 브랜드 요소가 적용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주요 구역을 마무리하고 12월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포 사업장은 현재 시공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내년 1월 모든 공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장마다 규모와 특성이 다르지만, 공통된 목표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된 세플러'의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브랜드 일관성'과 '브랜드 경험'이다. 옥상 로고부터 리셉션, 회의실, 사무 공간, 생산설비까지, 모든 공간이 세플러의 글로벌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구성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과 방문객 모두가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세플러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의 문화로 완성되다

통합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비테스코와 에벨릭스는 각기 다른 기업 문화와 업무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파트너사 퍼플릭스 스튜디오 역시 고유한 접근 방식을 지녔다. 서로 다른 배경과 방식을 가진 팀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수많은 조율과 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통합'의 의미를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물리적인 리브랜딩에 앞서, 구성원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정서적인 통합을 이뤄낸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끄는 브랜딩 & 마케팅팀 이현기 팀장은 "GBI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 다양한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주시는 팀원들과 임직원, 그리고 리더십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공간 변화가 아닌 '브랜드와 문화의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브랜드는 로고나 색상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이다. 따라서 일관된 브랜드 경험은 내부적으로는 구성원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고객에게 신뢰와 전문성을 전달하는 기반이 된다.

GBI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세플러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The Motion Technology Company'로서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일관된 언어로 표현하며, 세플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의 비전, 하나의 세플러'라는 메시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과정이다. 변화의 현장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모여, 이제 세플러의 이름 아래 새로운 브랜드와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이현기 팀장의 말에서도 그 의미가 잘 드러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물리적인 리브랜딩보다 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세플러의 철학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Wheel Bearing Project Management
황민수 팀장 가족의 궁평캠프스승마체험

가족으로 꽉 채운 특별한 주말

창원과 동탄을 오가는 '주말 부부' 황민수 팀장에게 휴일은 가족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날이다. 11월 2일 배우자 김은영 님과 두 딸 수연(14), 수진(12)과 함께한 이날 하루가 더 뜻깊었던 이유다.

INFORMATION 궁평캠프스승마장

주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376-4~6

문의
070-8828-1111

이용 시간
09:00~18:00, 월요일 휴무

'주말 부부' 탈출 프로젝트

작은 오솔길과 울타리가 있는, 맑은 눈망울의 말이 기다리는 곳. 지난 11월 2일 황민수 팀장과 만난 곳은 경기 화성의 한 승마 캠프였다. 차에서 내린 황 팀장은 가족들이 춥지 않도록 배려하며 찬바람을 피해 캠프 2층 카페로 이동했다. 배우자 김은영 님과 황 팀장이 앞서고 두 딸 수진, 수연이 뒤따랐다. 전형적인 4인 가족의 모습이지만, 황 팀장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벤트"라고 강조했다. '주말 부부·아빠'를 잠시 탈출하는 하루였기 때문이다.

평소 황 팀장은 BU Wheel Bearing Project Management 팀장으로 창원에서 근무하고 다른 가족은 화성 동탄에서 생활한다. 2017년 2월 세플러의 휠 베어링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늘 힘이 되어준 가족이지만 최근에는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단순히 참여하는 걸 넘어, 그동안 부족했던 가족과의 결속을 다지고 싶어요." 황 팀장은 참여 동기를 통해 가족을 향한 애뜻한 마음을 전해왔다.





Family Time

따스한 눈망울을 껴안는 말과
조용히 눈을 맞춘 후 말 안장에 올라
산책하는 동안, 황민수 팀장
네 가족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온 가족 승마 체험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가족의 순간

“하이잉~” 고대해온 승마 캠프의 첫 프로그램은 말 울음소리와 함께했다. 승마에 앞서 말을 알아가고 서로 교감하는 시간. 키가 작은 서틀랜드 포니 앞에서 망설이는 황 팀장 부부를 두고, 어린 수진과 수연이 당근을 집어 들었다. 말이 안심하도록 손 냄새를 맡게 하고, 측면으로 물러나 콧잔등을 쓸었다. 가족의 대화에 활기가 돌았다. “아빠! 이 말도 세플러처럼 독일에서 왔다. 아빠가 독일어로 인사하면 알지도 몰라!” 딸들의 말에 황민수 팀장이 멋쩍은 표정으로 답하며 웃음을 샀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직접 말을 타보는 승마 체험이었다. 네 식구는 안전과 보온을 위한 헬멧, 조끼를 착용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도착한 마방에는 앞서 만난 서틀랜드 포니보다 훌쩍 큰 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저게 내가 탈 말이야?” 딸들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수진, 수연이 첫 타자가 되어 말에 올랐다. 시야가 훑 높아지자 처음에는 바짝 긴장한 듯했지만, 곧 동생이 침착하게 말을 끌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쏟아진 칭찬에 “초등학생 때 승마 수업을 들은 적 있다”고 수줍게 말하며 자매는 함께 캠프 공간을 돌았다. 그 사이 승마가 처음인 황 팀장과 김은영님은 서로의 헬멧을 다정하게 정돈해 주며 다음 순번을 기다렸다. 황 팀장이 탄 말은 덩치가 큰 암말, 가벼운 김은영님은 그보다 작은 수말에 올랐다. 부부는 함께 하트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뒤따라온 두 딸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며 오래도록 간직한 추억의 한 장면을 남겼다.

희망의 다른 이름, 가족

모처럼 네 식구가 같은 하늘 아래 선 날. 겨울로 진입하는 계절임에도 햇살만은 따스했다. 가족들은 캠프 정원의 오솔길에서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이날의 이벤트를 무사히 마쳤다. 이번 승마 체험은 길지 않았지만, 황민수 팀장에게는 ‘희망’ 그 자체인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었다. 그가 말하는 가족이란 ‘힘든 순간에도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에 다름 아니다. 그는 “바쁘게 살다 보면 지치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가족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웃음과 눈물, 고민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있기에 오늘도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의 바람대로 이번 이벤트가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주길, 일터에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원한다.



Schaeffler Ground

vol. 82
Autumn & Winter 2025

‘2025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공식 후원

세플러코리아가 지난 9월 25~28일 나흘간 전남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 연구센터에서 열린 ‘2025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42개 대학에서 약 2,000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세플러코리아는 Formula 부문 후원자로 나서 대회 둘째 날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부스에서는 기업 소개와 함께 채용 담당자가 직접 취업 상담을 진행하며 진솔하게 교류했습니다. 학생들은 전공과 관심 분야를 접목할 수 있는 직무, 채용 시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 등 취업뿐만 아니라 세플러코리아의 사업 부문 또는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 활발히 질문했습니다. 특히 세플러가 모빌리티 솔루션부터 모터스포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의 세플러코리아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엔지니어 인재와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의 도전을 응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한국자동차공학회(KSAE)가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행사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 인재에게 설계 및 제작 관련 교육과 현장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회는 오프로드에서 펼쳐지는 Baja와 포장도로에서 진행되는 Formula 두 부문으로 나뉘어 열리며, Formula 부문에는 총 55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세플러코리아 ‘세플러 트루파워 다목적 윤활방청제’ 출시

세플러코리아 VLS 사업 부문이 ‘세플러 트루파워 다목적 윤활방청제’를 출시하며 자동차 라이프타임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고 9월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금속 표면의 녹 발생을 방지하고 윤활 기능을 제공하는 스프레이형 제품으로, 자동차 및 기계 설비는 물론 가전기기 등 일상 속 다양한 금속 제품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품을 금속 표면에 도포하면 얇은 유막을 형성해, 표면을 보호하고 습기와 부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좁은 틈새까지 빠르게 침투해 장기간 안정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체인, 기어, 볼트-너트, 잠금장치 등 마찰이나 소음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에 적합하며, 그 외 윤활과 방청이 필요한 모든 금속 부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60ml 용량의 스프레이 타입으로 360도 회전 분사 밸브와 접이식 스트로우를 적용해 어떤 각도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고급 저취 원료를 사용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지원합니다.

VLS 사업 부문은 그동안 세플러 트루파워(Schaeffler TruPower) 브랜드를 통해 부동액, 베어링 그리스, 브레이크 앤 파츠클리너, 차량용 AGM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습니다.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자동차 애프터마켓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했으며, 제품은 공식 대리점(주)중로를 통해 전국 유통됩니다.



통합 1주년, 코리아 타운홀 현장 속으로

세플러코리아는 10월 1일 통합 1주년을 기념하는 전사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통합 실행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주요 워크스트림의 실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우선 Korea Integration Execution Office가 통합 조직 출범부터 하나의 팀으로 거듭나는 과정의 주요 이정표를 소개했으며, 이어 Logistics, Finance, IT, 그리고 Global Brand Integration 워크스트림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단계적으로 통합되며, 조직 전반의 일관성과 운영 효율성이 점차 확보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병찬 대표이사는 “각기 다른 제도과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비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우리의 기술과 비즈니스의 역량까지 하나로 모아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천 사업장, 그룹 E-Mobility Operation·Quality 리더들과 미래 전략 논의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그룹 E-Mobility Operation & SCM 총괄 Mr. Silvio Zamzow와 그룹 Quality E-Mobility 총괄 Mr. Juergen Ebert가 이천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점검, 품질 이슈 및 개선 활동 리뷰, 생산라인별 운영 안정성 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EMR4 생산라인은 지난 방문 이후 공정 안정화와 품질 지표가 모두 크게 향상되었으며, 두 경영진은 이천 공장의 빠른 개선 속도와 높은 실행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직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시장 전망에 대한 그룹의 관점을 공유하고, 이천 공장이 E-Mobility 핵심 생산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현장은 뜨거운 분위기를 보였으며, 참석자들은 글로벌 전략과 공장 운영 방향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천 사업장은 품질·생산성·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윤활 시스템 ‘FAG 옵타임 C4’ 출시

세플러코리아가 10월 15일 윤활 지점과 장치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윤활 시스템인 ‘FAG 옵타임 C4(FAG OPTIME C4)’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로써 세플러는 라이프타임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FAG 옵타임 C4는 설비 내 윤활 지점과 장치의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해 까다로운 설비 윤활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고, 필요한 시점에 자동으로 윤활유를 공급하는 스마트 윤활 장치입니다. 베어링의 조기 고장 방지와 다운타임 감소를 통한 비용 절감은 물론, 작업자가 위험 구역에 머무르는 시간을 크게 줄여 안전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의 자동 윤활 시스템 대비 한층 더 유연하고 강력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최대 4개의 지점에 대해 윤활유 공급 및 공급량을 개별 설정할 수 있어, 제품 하나만으로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구조가 까다로운 설비, 설치공간이 제한적이거나 많은 양의 윤활유가 필요한 설비 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 ‘옵타임 앱’을 활용하면 윤활유 소진, 과다·과소 공급, 오염, 윤활 라인 막힘 등 다양한 윤활 관리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플러코리아는 세플러 라이프타임 솔루션을 통해 유지보수 제품 및 서비스, 솔루션 등 관련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북대학교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실 후원 협약 체결

세플러코리아가 지난 11월 4일 기술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한 경북대학교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실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플러코리아 서울 사무소에서 진행된 후원식에는 이병찬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북대학교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실의 조현민 교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로써 세플러코리아는 2026년 상반기까지 연구실의 로봇 개발 활동 및 학술대회 참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북대학교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실의 주요 연구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족 보행 및 양팔 조작, 그리고 휴머노이드 플랫폼 설계입니다. 최근 8건의 특허 등록 및 출원, 10편의 논문 발표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달성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기술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플러코리아는 75년 이상 축적된 모션 테크놀로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원으로 모빌리티에 이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미래 기술 인재들이 보다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기술 협력으로까지 이어질길 기대합니다.

이천 사업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이천 사업장이 지난 10월 27일 적십자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식’에서 이루어졌으며, 박순근 님(E-mobility Sales AP, E-mobility Business Development & Strategy AP)이 이천 사업장을 대표해 수상했습니다.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유공 정부포상은 2024년 신설되어, 지역사회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해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되고 있습니다. 이천 사업장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힘써 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랑의 먹거리 나눔 행사’를 열고, 이천시 내 결연세대 116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이어 10월에는 ‘러브투게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후원해 이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수입차 전용 와이퍼 블레이드 신제품 출시

세플러코리아의 자동차 라이프타임 솔루션 사업 부문이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사용할 수 있는 ‘세플러 트루파워(Schaeffler TruPower) 와이퍼 블레이드’를 10월 28일 출시했습니다. 금속 프레임이 없는 곡선형 디자인의 이번 신제품은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고품질 고무 소재로 제작되어 차량 유리창의 빗물과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악천후에서도 안전한 주행을 위한 선명한 시야를 확보합니다.

이번 와이퍼 블레이드 신제품 7종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설계와 그래파이트(Graphite, 흑연) 코팅이 적용되었으며, 플랫 블레이드(프레임리스) 기술로 스틸 스프링과 블레이드 고무가 일체형으로 구성됩니다. 혁신 설계를 통해 부드럽고 조용한 와이핑 성능을 제공하며, 고속 주행 시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또한 세플러의 정밀한 기술력을 통해 와이퍼 블레이드를 유리창 곡면에 고르게 밀착시켜,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백승호 이사 ‘제8회 베어링인의 날’에서 산업부장관 표창

세플러코리아의 베어링 부품 MU장인 백승호 이사가 11월 12일 더링크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베어링인의 날’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베어링산업협회와 영주시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김종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센터장 등 베어링 제조 관련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백승호 이사는 1991년 입사 이후 34년간 생산팀장, 베어링 부품 사업부장 등을 거쳤으며 ▲대형 앵글러 볼 베어링 및 테이퍼 베어링 생산성 향상 ▲전기차 고속 모터 베어링 개발 ▲코팅 베어링 신규 개발 및 양산 체제 구축 ▲단조(열처리) 기술 활용한 베어링 공정 합리화 등 국내 베어링 시장의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자동차 및 정밀 기계산업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백승호 이사는 “작게나마 한국의 베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펼쳐

세플러코리아는 11월 11일, 이천시 관내 취약계층 200세대에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활동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동부봉사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이천시협의회, 다문화가족, 세플러코리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천시의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이천 사업장에서 주관하는 김장 봉사에 처음으로 함께한 ESG TF 이병호 팀장은 “세플러코리아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김장 나눔이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따뜻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라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이천시협의회 백승자 회장은 “매년 꾸준히 봉사를 이어주시는 세플러코리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든든한 손길을 보태 주셔서 지역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플러코리아 나의 취향 나의 감성 최애 사진 챌린지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장면은 무엇인가요?
 이번 챌린지에는 퐁퐁 언 마음도 사르르 녹여줄
 따스한 추억들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 꼭꼭 담아 놓은
 세플러 가족들의 행복한 찰나를 공유합니다.



우수상

“달나라로 점~프!”

밤하늘에 뜬 커다란 달 앞에서 아이는 여러 번 뛰어올랐습니다. 달에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은 표정으로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찍힌 한 장의 사진에는, 발끝이 막 하늘로 닿는 찰나의 순간이 담겼습니다. 그날 밤, 달빛보다 더 환하게 빛난 건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현실 위에서 꿈꾸는 용기, 그 순간만큼은 진짜 달나라에 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서 이 사진을 다시 본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집니다.

정해경_ APIT Infrastructure & Platform



장려상

나의 사랑, 나의 모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올해로 만 일곱 살이 된 모카. 오랜 시간,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결혼을 하면서 새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상대로 처음 한 달 정도는 새로운 공간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서 아빠랑 예쁘게 누워있는 모습을 처음 발견하고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집사로서 정말 고맙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모카.

김다희_Customer Service 창원



나만의 새해 축하

흰 눈이 포근히 내려앉은 홋카이도의 새해, 기다림 끝에 마주한 킹펭귄들의 행진은 잊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짧은 다리로 뒤뚱거리면서도 당당하게 눈밭을 걷는 모습은 흡사 턱시도를 차려입은 신사들 같습니다. 노란색과 검은색이 선명한 얼굴, 일렬로 늘어선 그들의 발걸음은 새해를 축하하는 작은 축제 같았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펭귄들은 오직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그 씩씩한 뒷모습에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힘찬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꼭 뽐냈으면 좋겠네요!

박재석_이천 OPERATIONS & SCM E-MO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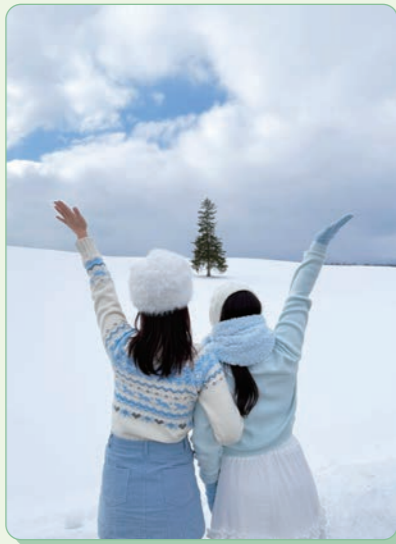


장려상

지는 것도 아름다운

할미·할아비 바위 사이로 황금빛 태양이 내려앉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해변가, 나무 방파제 위에서 잊지 못할 노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고요한 바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잔잔하게 속삭이며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듯합니다. 이 아름다운 찰나를 오래도록 간직하며 일상의 소중한 힘으로 삼고자 다짐합니다. 지는 것도 멋진 일몰처럼 저의 올해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추인혜_HR창원



참가상

언제나 함께

흰 눈이 쌓인 일본의 삿포로 언덕 위에 앉은 듯 다른 니트를 입고 나란히 섰습니다. 수많은 날을 함께 고민하고 웃었던 동료가 이제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 내 곁에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좋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저 멀리 홀로 선 나무처럼 단단하고 변치 않을 우리의 우정을 약속합니다. 가슴 가득 채운 삿포로의 푸른 하늘과 눈부신 설경처럼, 앞으로 펼쳐질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이토록 아름답기를.

박지원_HR창원



‘형제의 나라’에서 만든 특별한 경험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색다른 여행지를 찾던 중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튀르키예에 매력을 느껴 한 달 살이를 떠났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교차하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튀르키예는 다채로운 문화와 매력을 품고 있었고,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관광지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카파도키아에서 마주한 환상적인 열기구 풍경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고, 제 여행 중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안성대_이천 EMR4

Thanks & Quiz

기자단

- 서울 박지수 기자
- 창원 기대환 · 손강우 기자
- 안산 최진경 기자
- 전주 이세영 · 이육균 기자
- 이천 윤일선 · 이민지 · 안벼리 기자
- 연구소 김현용 기자

편집실

- 커뮤니케이션
- 민유정 팀장, 윤솔지 마스터
- 브랜딩 & 마케팅
- 이현기 팀장, 김채정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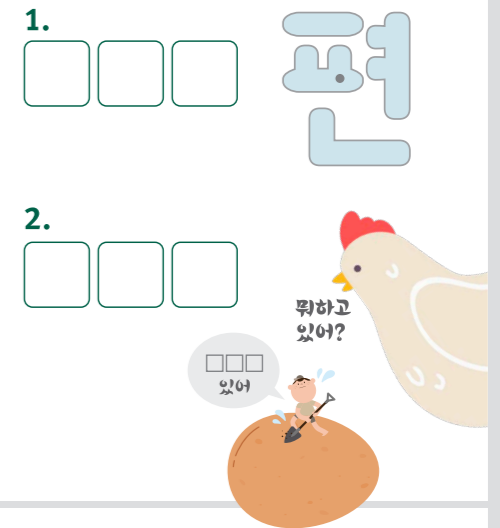
지난 호 당첨자 명단

- 이경동(부산 시판영업)
- 강민우(전주 설비보전)
- 고윤미(이천 PlantSCM)
- 이창호(이천 BU ENCR&D)
- 김성완(안산 ETS sales)
- 김동철(안산 E-Axle segment)
- 서상수(창원 BU Wheel Bearing)
- 배기웅(이천 Plant Q)
- 임준선(전주 사업관리팀)
- 이준호(창원 EnES)
- 이송원(이천 EMOBR&DSWI)
- 조유정(이천 R&DSW&F)

* 사보 퀴즈 및 챌린지 코너의 경우, 1가구 1부상 기준으로 당첨자 상품이 지급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Nonsense Quiz

답을 알고 나면 ‘피식’ 웃음이 터질지도 모를 ‘그림 난센스 퀴즈’입니다. 셰플러인들의 센스와 상상력을 마구 발휘해 정답을 맞혀보세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웃음을 주는 오답도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지난 호 정답

- Quiz 1. 무에타이
- Quiz 2. 아이돌

참여 방법



스마트폰 문자 보내기로 참여하는 방법

- 1) 받는 사람에 yoonslt@schaeffler.com 이메일 기입
- 2) 필수 내용 작성하기_ 사보 퀴즈 참여 ① 퀴즈 정답 ② 직원 성함 ③ 사업장 위치 ④ 부서명 ⑤ 스마트폰 번호
- 3) 문자 보내기!



더욱 스마트한 윤활 시스템이 필요할 땐 FAG OPTIME C4

자동 윤활의 장점과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을 결합하여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제거하세요! 기계 윤활을 더욱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해진 적용 가능성: 개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4개의 토출구, 먼 거리까지 윤활유 이송이 가능한 토출 압력, 넉넉하고 고용량 충전 용량
더 많은 인사이트: 카트리지 삽입 여부 인식, 윤활유 잔량 표시, 역압 경고 표시
더 적은 유지보수: 관리 시간 절감,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 감소, 더욱 안정적인 운영



더 알아보기

We pioneer motion

SCHAEFFLER